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Address: 135 West 31st Street, New York, NY 10001

Phone : 212.736.8500 (EXT 355, 384)
347.834.5784

Website : www.stfranciskc.org

청년 website : facebook.com/groups/yagfyny

Email : stfranciskc.org@gmail.com

주임신부 : Fr. Thomas Gallagher, O.F.M.

지도신부 : Fr. 김진열 가롤로(작은형제회 (프란치스코회)) carolokimofm@gmail.com

지도수녀 : 박순호 티모테아(투스 포교베네딕도회 서울수녀원) seoulusb@gmail.com

사목회장 : 이서원 마리로사 201.787.0879

한국학교 : stfranciskc@gmail.com

[제1독서] 예레 23, 1-6

[화답송] 시편 23(22), 1-3 가. 3나 다-4.5.6(◎ 1)



(후렴)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으라.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으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 내 영혼에 생기 돋우어 주시네. ◎
- 당신 이름 위하여, 나를 바른길로 이끄어 주시네.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단신 함께 계시오니, 두려울 것 없나이다. 당신의 막대와 지팡이, 저에게 위안이 되나이다. ◎

[신앙고백] -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 한 분이신 하느님을 ◎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밀줄 부분에서 모두 고개를 깊이 숙인다.>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니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제 2 독서] 에페 2,13-18

[복음환호송] 요한 10, 27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 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복음] 마르코 6,30-34

[성가안내]

- 입당성가 [439] 부드러운 주의 손이
- 봉헌성가 [217] 정성어린 우리 제물
- 성체성가 [175] 이보다 더 큰 은혜와
- 파견성가 [31] 이크신 모든 은혜

미사 봉헌

연미사	봉헌
이영우, 이태묘 전마사자 카타리나 박난성 요셉 프란치스코 윤은미 유스티나 이재호 클레멘스 이재호 클레멘스 김영 보나벤투라	이상홍 스테파노 김종화 필립보 부부 양미숙 마리아 장준영 미카엘 윤동진 프란치스코 박기목 알버트 김승애
백미사	봉헌
윤복홍 요한 (영육 건강위해) 황경옥 채봉석 그레고리오	윤 루시아 황경숙 수산나 송준호 바오로

주일	해설	1독서	2독서	보편지향기도	성찬봉사
7월 18일	이영노 율리안나	김진섭 야고보	민덕미 안젤라	민덕미 안젤라	김지영 유스티나
7월 25일	이지훈 아네스	강호영 대건 안드레아	고은경 모니카	고은경 모니카	양미숙 마리아

● 주일 학교 교리 교사 찾습니다.

9월부터 팬데믹 이전으로 주일학교 일정이 되돌아 간다는 가정 아래 미래 교회의 주인공인 어린이들을 신앙생활과 사랑의 예수님께로 인도 해 줄 봉사자들을 환영합니다.

문 의 : 김 가연 크리스티나
연락처 : 347-882-2244

● 예비자 교리반 시작 공지입니다.

- 교리 시작 : 2021. 9. 26. 주일 미사 후
- 신 청 :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무실에 내 주세요.
- 세례 예정 : 2022년 부활 대축일

● 공동체 설립 25주년 기념 추진 위원회 제 3차 모임

- 일 시 : 2021. 7. 18. 미사 후
- 장 소 : 2층 교리실 (사무실 옆)
- 대 상 : 추진 위원

● 사목 협의회 7월 회의는 방학입니다.

● 청년 성서 모임 제28차 탈출기 연수생 모집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안전수칙을 엄격히 준수하며 대면으로 진행하며 마스크 착용/사회적 거리두기/손소독 철저함.

- 일 시 : 2021. 8. 20(일) ~ 8. 22(화)
- 대 상 : 탈출기 그룹 공부 마쳤거나 현재 공부중인 청년
 - 코로나 백신 2차까지 완료한 청년
- 신청마감 : 2021. 7. 18(일) 선착순 마감
- 문 의 : 201-937-6622 조 아미 마리 올리안나 수녀
<https://forms.gle/.4YktoPNmWYoE8jtr6>

[한인공동체 온라인 서비스 안내]

1. 미국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구글에서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을 검색하세요.

stfrancisnyc.org > korean-ministry > Translate this page
Korean Ministry - Saint Francis of Assisi

클릭하면 한인공동체로 바로 연결됩니다.



[미사 안내]

- 주일 미사 중 '마스크'는 꼭 착용해 주세요!
- 일요일 9:15 am (한인공동체)

[성사 안내]

주일미사	오전 09:15 윗 성당
청년미사	(당분간 중단) 매월 둘째 토요일 오후 6:00
고해성사	주일 오전 8:30 ~ 8:50 지하 성당 고백실
혼인성사	당분간 중단
유아세례	당분간 중단
예비자 및 견진교리	기간 : 9월 시작 - 다음해 4월 주일 10:50am - 12:00pm, 클레어 룸

[단체모임 안내] : 추후 공지 때까지 중단합니다.

올뜨레아	1 st 주일 11:00 am	교육관 4
학부모회	1 st 주일 11:00 am	교육관 3
요셉회	2 nd 주일 11:00 am	Conf. Rm(2F)
성모회	2 nd 주일 11:00 am	교육관 4
연령회	2 nd 주일 11:00 am	Lower Church
꾸리아	3 rd 주일 11:00 am	Lower Church
양업회	3 rd 주일 11:00 am	Conf. Rm(2F)
성령기도회	매주 화 06:00pm~07:30pm	Conf. Rm(2F)
예수성가정회 (FYMNY)	4th 주일 11:00am	Francis Room

[기도해주세요]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마태 25,45)

♡ 투병중에 계신 분

- | | |
|---------------|------------|
| 김순한(루시아) | 김옥지(아가다) |
| 전마지(마가렛) | 김동희(헬레나) |
| 이종환(토마스 아퀴나스) | 이정주(소화데레사) |
| 김용기(요셉) | 정창동(폴리나) |
| 지군자(스테파니) | 고종호(마태오) |
| 홍봉운(바오로) | 진정은(마리아) |
| 이경봉 (요셉그레고리오) | 노의선 |

[2021년 7월 교황님의 기도지향]

복음화 지향 : 사회적 우정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갈등 상황에서 우리가 담대하고
열정적으로 대화와 우정을 가꾸어 나가는 장이 될 수 있
도록 기도합니다.



Nest Seekers
INTERNATIONAL

부동산
크리샤 박
krishap@nestseekers.com
(917)370-0394



뉴욕 맨하탄 NYC INTEGRATIVE
ACUPUNCTURE
마음힐리언스 한방병원



마리아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 아그네스
646-808-7322

이민전문 (아오스딩)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ATTORNEY AT LAW

STEVEN LOUROS
EXPERT IN PERSONAL INJURIES

212-481-5275 (New York)
718-423-0448 (Flushing)
1261 BROADWAY SUITE 1100 NEW YORK
SLOUROSESQ@YAHOO.COM

그리운 miss KOREA

10 W 32ND STREET 1,2,3 FL, NY
201-888-6765



23 W 32ND STREET, NEW YORK
212-695-5815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 58 WEST WINE & LIQUOR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11AM-11PM/ SUN: 12PM-9PM)

더큰집

32 W 32ND STREET NEW YORK
TEL. 212-564-8238

CAMPUS Education
Learn English with US
유학생 환영

212-868-9777 (한국어 상담)
koreanny@studyoncampus.com
410 8th Ave. 5 FL New York

Custom Made
Clara Wedding Gown
& Dresses

ClaraGowns@gmail.com



오늘의 복음 묵상

(마르코 6,30-34)

인류의 역사에서 발생한 모든 전쟁은 어쩌면 더 많은 빵을 얻기 위한 것이었는지 모릅니다. 강대국이 약소국을 도와 준다는 명분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자국의 이익을 더 많이 얻으려는 싸움일 뿐입니다. 테러와의 전쟁, 평화 유지를 위한 싸움도 무기를 팔아 더 많은 부를 축적하고 권력을 얻고 그 지역의 지배권을 가지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이 세상에 옳은 전쟁과 싸움은 없습니다. 이렇게 역사 이래 인간의 탐욕은 전쟁과 폭력을 사라지지 않게 합니다. 그 때문에 가난한 이는 더욱 가난해지고,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지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도 역사 속의 전쟁과 같은 싸움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더 많은 부와 명예를 얻으려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짓밟으며 경쟁합니다. 짓밟지 않으면 짓밟히고 빼앗기기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싸움에서 이기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늘 경계와 의심의 눈초리로 주위를 바라봅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오천 명을 먹이신 기적(마르 6,35-44 참조)을 행하시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당신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배불리 먹이시기 전, 예수님께서 어떤 시선과 마음으로 주위를 둘러보셨는지를 잘 보여 줍니다. 예수님께서 쉬고 싶으셨습니다. 쉬시며 허기를 달래고 싶으셨지만, 너무 많은 사람이 오가는 바람에 제자들과 함께 외딴곳으로 떠나 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곳까지 쫓아와 예수님께서 쉬실 수도, 허기를 달래실 수도 없으셨습니다. 이렇게 배고프고 피곤하신 예수님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당신의 허기를 달랠 빵이 아닌 굶주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습니다. 그 시선에서 예수님의 기적이 시작됩니다.

우리 또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빵이 필요합니다. 충분하기보다는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내 이익과 욕심에 주의를 빼앗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에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더 가난하고 아파하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시선을 돌리고, 아주 작은 것이라도 그들과 함께 나눌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기적의 현장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 최 종훈 토마스 신부 -

주님의 기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몰라 힘겨워하던 제자들과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주님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손수 지어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기도이므로, 모든 기도의 기초요, 으뜸이 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주님의 기도를 바칩니다. 너무 자주 바치다보니 습관화 되어 이 기도가 지닌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님의기도를 바칠 때는 아무 생각없이 무한 반복해서는 안됩니다. 조금 여유를 갖고, 그 맛을 음미하면서,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무엇보다도 지극한 존경심으로 바쳐야 합니다. 또한, 기도의 한 구절을 구체적인 삶속에서 실천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바치면 좋겠습니다. 많이도 말고 하루에 딱 30분 정도만 시간을 내어, 구절마다 멈추고 머물면서, 기도의 내용과 자신의 삶이 잘 부합하는지 성찰하며, 묵상해 보실 것을 권장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 이 작고 미천한 제가 거룩한 당신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허락하신 하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세세대대 길이 찬미 찬양 받으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소서: 아버지, 지난 삶을 돌아보니 부끄럽게도 언제나 제뜻만을 추구하고, 제뜻만을 관철시키기 위해 발버둥쳐 왔습니다. 이제 남은 날들은 언제 어디서나 아버지의 뜻을 찾고, 아버지의 고귀한 뜻이 이땅위에 이루어지는데 작은 도움이라도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오느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 아버지, 오늘 주신 양식은 저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저희에게 주신 것이니, 앞으로는 혼자서만 독식하지 않고, 어려운 이웃들과 적극적으로 나누고 공유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저희에게 잘못된 이를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 용서만이 제가 살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용서 받은 죄인으로서, 밥먹듯이 이웃을 용서하겠습니다. 저희를 죄인으로서, 밥먹듯이 이웃을 용서하겠습니다.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 예수님 추종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 돈이 최고 가치라는 유혹, 아버지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유혹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 양승국 스테파노 신부 (살레시오회) -